

시험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해사정이론은 매년 그렇듯 수험서에 없는 내용이 출제됩니다. 예측하고 있어도 막상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고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올해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최근 출제된 문제중에서는 그래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엔 쉽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준비한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서 역시나 많이 출제되었고 계산문제도 어려운 기대효용과 관련된 문제보단 기초적인 소멸시공제조항, 총보험료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계약법적인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고 보험계약법과 병행해서 준비한 수험생들은 수월하게 풀이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3~4문제 출제되었고 재보험특약 조항과 관계된 문제 3~4문제, 제3보험, 자동차보험대물등 2차 위주의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2차 위주로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다시한번 증명된 시험입니다. 2차 준비없이 1차만 공부한 수험생들은 몇문제 당황할 수 있었겠지만 2차 준비와 함께 1차를 준비한 수험생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를 빼놓고라도 기본에 충실하고 문제풀이

를 꾸준히 연습하신 수험생들이라면 6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이패스 수강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딱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다시 최종합격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시다~화이팅!!